'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5월 개최

남원시, 5월 2~5일 5개 분야 13개 종목 경연… 최고 명인명창 탄생 · 국악 인재 배출

남원시에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아트센터, 사랑의 광장,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경연은 5개 분야 13개 종목으로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청소년부, 신인 및 외국인부) △무용(일반부, 청소년부) △기악관악(일반부, 청소년부) △기악현악·병창(일반부, 청소년부) △퓨전·창작국악 부문이다.

춘향국악대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인명창이 탄생하는 순간을 만나볼 수 있는 대전이자 국악 인재를 배출하는 꿈의 대회로, 올해는 전통의 무게를 지키면서도 더욱 많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형, 참여형 경연으로 탈바꿈하고자, 신인 대전과 퓨전·창작국악 부문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 사진

신인 대전은 누구나 폭넓게 참가 할 수 있게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국악·성악 비전공자 및 외국인 등의 개인과 단체출전이 가능하게 했으며, 시민참여형 경연을 강화하기 위해 신인 대전에서는 현장 관객 투표 방식을 일부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특히,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중심이 되는 대회의 권위, 품격, 공정성을 더욱 강화, 심사위원 선정과 검증,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실력 있는 경연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영예의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일반부 각 분야 대상 수상자들에게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남원시장상 등이 수여되고, 판소리 명창부 및 일반부 대상 수상자들이 펼치는 축하공연이 5월 6일, 춘향제 행사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장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에 가서는 소리자랑 마라'는 속담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나 오셔서 마음껏 소리 자랑도 하시고 함께 즐거운 잔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3월은 태권도원 여행가는 달

태권도진흥재단, 입장료 50% 할인 · 상설공연 확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오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하며 태권도원 입장료 할인과 상설공연을 확대 운영한다.

먼저, 3월 한 달 태권도원을 찾는 성인은 4천 원에서 2천 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3천 원에서 1천5백 원 등 50% 할인된 금액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태권도원 상설공원 '태권도 영원한 유산'은 2월까지 주말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3월부터는 태권도원 휴원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등 일일 2회 공연으로 확대한다. 공연 관람에 이어 단원들과의 기념촬영, 미트 팡팡 등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할 수 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3월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은 태권도원 입장료가 무료이고,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9일 오후 1시와 2시, 3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방문하는 현장 신청으로 태권도 나전 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태권도원이 선정되었고, 진로교육 활성화 유공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즐기고 따뜻한 봄기운도 만끽하는 등 태권도원으로의 여행을 계획해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해법 모색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 생태관광+(플러스)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과 국주영은 의원,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등 주요 인사와 14개 시군 생태관광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생태관광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는 '체류형 생태관광'이다. 체류형 관광은 단순 방문이 아닌 장기간 머물며 지역의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깊이 체험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은 △생태관광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극복(단국대 김현 교수) △전북 생태관광+(플러스) 기본계획과 신규 생태관광지 조성방안(전북자치도 이성석 생태자원팀장)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추진방향(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전문가 5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관광 트렌드 변화와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전북 생태관광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생태관광 전문가 자문단을 공식 위촉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전북 천리길 및 삼천리길 연계 관광 △생태관광과 지역 비즈니스 접목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모델 확대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생태관광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류형 관광을 발전시켜 전북을 국내 대표 생태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전주 · 익산 ·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약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소장 배지연)·익산(소장 맹현숙)·군산(소장 주영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지원사업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과 고용센터의 일·육아 양립지원금 제도에 대해 상호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각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기업 컨설팅, 간담회 등 상호 교류 협력 등이다.

전정희 원장은 "각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도내 기업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면 지역사회의 일·생활 양립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완주문화의집 · 삼례생활문화센터, 토요 체험프로그램 진행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가 봄을 맞아 감성스푼 사업 일환으로 토요일 체험프로그램인 '푸른 봄, 일상 속 쉼표'를 진행한다.

'감성스푼'은 바쁜 일상 속 문화 체험을 누리기 힘든 완주군민을 위해 최대한 요일과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매력 있고 신선한 단기성 체험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일에는 원예예술인 토피어리 만들기, 15일에는 삼례읍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딸기를 상징해 만드는 딸기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을 통한 선착순 접수로 진행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